

# 함께하는 미술시장, 설레는 미술축제 '아트광주 23'

미협 광주지회, 21~24일 DJ센터  
105개 갤러리, 13개 특별전 부스  
광주전남 갤러리 44개 역대 최대  
해외 갤러리 초청전 연계 행사도

“갤러리 중심의 부스, 순수 아트페어를 매개로 미술시장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지난해 출범한 미술문화매세나 조직위를 중심으로 기업, 공공기관 등과 상호교류를 촉진해 지원체계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윤익 제14회 광주아트페어 총감독은 최근 개최된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광주아트페어는 생산과

유통, 소비의 공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삼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감독은 “2차 판매(resale) 작품보다는 작가 작품이 판매되는 구조가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갤러리는 작가를 지원하고 아트페어는 갤러리를 지원해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작가들이 미술시장에서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4회 광주아트페어 '아트광주 23'이 오는 21일 개막해 24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1, 2, 3관)에서 열린다.

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아트광주 23은 105개 갤러리 부스와 13개 특별전 부스 등 모두 118개 부스로 구성된다. 105개 부스 중에는 국내가 94개, 국외가 11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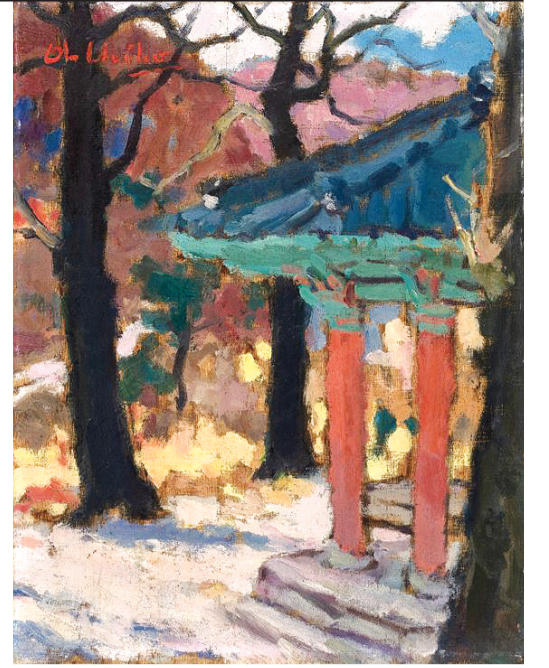
사실 아트페어는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색적인 문화현장이다. 미술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도 즐기며 알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올해 주제는 '함께하는 미술시장, 설레는 미술축제'. 특히 44개의 광주·전남 갤러리가 참여해 과거와 비교해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의 작가 직영 부스를 없애고 상업 갤러리만 선정해 미술시장의 매개자인 전문화랑의 육성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특별전에는 서울 국제조각페스타를 비롯해 대구 국제블루아트페어, 부산 BFAA 아트페어,



데이비드 호크니 작 'My window d'



오지호 작 '풍경'

전주 아트전복페스타 등 타 지역 아트페어들이 참여한다. 이들이 향후 우리 지역 작가를 초대하고 교류함으로써 지역미술계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별전으로 아트광주 명품전이 열린다. 호남미술 컬렉션, 우수작품 컬렉션, 아트광주 22 관람객 선정 인기작가전 및 타지역 아트페어 교류전 등 다채로운 특별전도 펼쳐진다.

특히 명품 컬렉션전에서는 우리 지역의 미술애호가 모임이 소장한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오지호 화백의 '풍경'을 비롯해 이진용 화백의 '하트 (#76-3)', 강용운 화백의 '고대(古寺)', 데이비드 호크니의 '꽃', 무라카미 다카시의 'smile' 등 국내외 유명작가의 명작이 전시된다.

올해는 매세나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시적 후원체계를 확대 지원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 아트광주 지역 문화 거버넌스를 선도하고 아트페어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선순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아트광주는 연계 행사인 해외 갤러리 초청전도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아트광주 22에 참여해 교류협약을 맺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방글

라데시, 인도의 5개 갤러리에서 광주 작가 14명이 참여하며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기획전이 진행된다.

올해는 미국을 비롯해 중국, 영국이 확대 참여하며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교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트 광주는 실질적인 행사 진행과 성공을 위해 다양한 홍보와 아울러 참여 갤러리 지원도 추진한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매개로 참여갤러리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고 SNS를 활용해 행사 홍보, 초대권 사전구매도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는 온라인에 있는 1만5000여 직장인 컬렉터 모임과 연계해 국내 미술품 컬렉터들이 광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박광구 광주미술협장은 “함께하는 미술시장, 설레는 미술축제” 주제처럼 이번 아트페어는 다양한 문화자산과 미술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계기라며 “아트페어의 외연을 확장하고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춘 미술시장이 될 수 있도록 미협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해 열린 아트페어 장면.

<아트광주 사무국 제공>

## 국내외 최정상 뮤지션들의 재즈콘서트

한낮에는 여전히 무더운 날씨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 시원한 가을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야외에서 극장 빅도어를 열고 뮤직콘서트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ACC재단은 오는 10월 8일 'ACC 빅도어콘서트'를 진행한다. ACC 예술극장 야외무대에서 국내외 최정상 뮤지션들의 재즈콘서트를 만날 수 있는 것.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ACC 빅도어콘서트'는 재즈 특집으로 펼쳐진다. 세계적인 재즈 기타리스트 줄리안 라지, 8명의 색소폰과 3명의 리듬섹션이 더해진 남유선의 Breath of 8, 광주를 기반으로 구성된 G.J.Unity(Groove Jazz Unity) 무대가 예정돼 있다.

첫 무대는 'G.J.Unity'가 재즈의 전통을 계승하

고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 '포스트 스트레이트 어 헤드' 음악을 선보인다. 이어 재즈 색소포니스트 겸 작곡가 남유선은 한국 재즈 역사상 첫 시도하는 8개의 색소폰 프로젝트 'Breath of 8' 공연을 선사한다.

마지막은 세계적인 재즈 기타리스트 줄리안 라지가 장식한다. 라지는 비밥, 콘템포러리 재즈 뿐 아니라 블루스, 컨트리, 아방가르드프리카재즈의 영향을 받아 독보적인 사운드를 구축했다.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컨템포러리 재즈 앨범 부문 수상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ACC재단 문화예술팀 관계자는 “이번 빅도어콘서트는 선선한 가을 밤, 야외 공간에서 국내외 최정상 뮤지션들의 재즈콘서트 즐길 수 있는 자리”라며 “다채로운 재즈 세계를 감상하며 힐링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ACC 빅도어콘서트'

10월 8일 예술극장 야외극장



breath of 8.

입장권은 2만원이며 ACC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콘서트 당일(10월 8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 판매 진행.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윤전일 댄스이모션 '첫번째 게임'



'첫 번째 게임'에 출연하는 안남근 배우.

<윤전일 댄스이모션 제공>

### 20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스트리트 댄스 문화의 산물인 '크림핑'부터 발레, 한국무용까지... '춤은 인간의 몸이 형성하는 미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무용이 선사하는 정동을 긴장감 있는 서스펜스 형식으로 펼쳐내는 무대가 마련된다. 윤전일 댄스이모션이 오는 20일(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치는 '첫 번째 게임 Uno. Dos. Tres. Cuatro'이 바로 그것.

무대에는 스페인 국립발레단 솔리스트와 국제무용공쿠르 입상자, MNET 등 TV 프로그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무용수들이 대거 올라 관객들의 이목을 끈다.

돈다발이 들어있는 의문스러운 007가방이 남자 열 명 앞에 놓여 있다. 그중 하나가 가방을 갖고 달아나버려 실망하던 찰나, 불현듯 다른 가방이 나타난다. 이를 차지하려는 혈전은 달리고 넘어지는 몸짓이 되다가 뽀빠옴으로 변진다. 급기

야 춤을 빼 들고 추격전을 펼치다가 가방을 열어 보는데...

신승원(동덕여대) 교수가 총연출을 맡았으며 윤전일 댄스이모션 대표 '윤전일'이 예술감독을 맡고 안무를 기획했다. 한예종 무용원을 졸업한 윤 씨는 전 국립발레단 솔리스트 및 루마니아 국립발레단 주역무용수로 활동했다. MNET 댄싱 9 프로그램 시즌 2.3에서 모두 우승했으며, 2008년 베를린국제무용콩쿠르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현대무용수 안남근과 프로그램 '썸바디' 등으로 인기를 모았던 한선천 등도 안무를 선보인다. 또 한국 무용수 출연진에 최태현, 정지민, 신한서 등이 이름을 올렸으며 스페인 국립발레단 솔리스트 이은수, 한예종 무용원 교수 김현웅 등도 발레 공연을 보여준다. 이외 네덜란드, 영국 등지에서 활동해 온 크림프 댄서 김태엽과 아역무용수 정명준, 김시훈의 춤사위도 감상할 수 있다.

/최루빈 기자 rubi@kwangju.co.kr

## 광주여성가족재단, 22일 '성주류화 제도를 통한 시민체감도 UP' 포럼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이하 여성가족재단)은 '성주류화 제도를 통한 시민체감도 UP'이라는 주제로 202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 포럼을 오는 22일(오후 2시) 재단 3층 은세움에서 진행한다.

'성주류화(性主流化)'란 모든 성별집단이 의사결정권 및 사회혜택을 동등하게 누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술·제도적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포럼은 두 개의 주제발표와 토론회 및 성평등 공감 우수사례 발표로 진행된다. 먼저 민소담 용인시 양성평등전문관이 '용인시 성주류화 농사직설'이라는 주제로 용인시의 성주류화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이아승 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평가센터 전담 연구원이 '다양한 관점,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주제로 광주지역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사례 등이 야기할 예정이다. 좌장에 이명노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어 '성주류화 제도와 시민의 삶'에 대해 오영순(광주시 남구의회), 전영원(시민플랫폼 나들 공동대표), 조영임(광주시 광산구의회)이 의견을 개진한다.

시민과 활동가,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진행하는 코너도 있다. '시민과 관계 공무원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 이어 성평등 공감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문의.

/최루빈 기자 rubi@kwangju.co.kr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